

# 여자치과의사가 늘고 있다

60년대나 70년대만 하더라도 치과대학에서 여학생을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치협에 신고된 치과의사의 성별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세 미만의 여자치과의사의 비율이 34.24%에 달해 앞으로 치과계에 이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자치과의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분히 남성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치과계에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뤄본다.



여자치과의사가 늘고 있다


“가정과 진료병행 쉬운 일이 아니예요”

인터뷰

장계순/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방몽숙/전남대학교 치과대학장

김진/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과 교수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1층 로비. 지난 62년 16회 졸업생부터 98년 52회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매년 졸업생의 사진이 액자에 가지런히 나열돼 있다.

이기택 현 치협 회장, 본지 주간인 임형순 치협 부회장 같은 낯익은 얼굴도 있어 보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록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지만 지나간 치과계의 역사를 말없이 반영하는 듯하다. 60년대 졸업생의 사진만 보더라도 다소 굳은 표정, 흑백사진, 그리고 사진의 주인공. 그들은 이제 치과계의 굼직굼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 98년 졸업생의 사진을 보면 표정이나 포즈가 다소 자유스럽고 특히나 여학생은 세련된 화장에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해부학 수업을 마치고 잠시 사진을 둘러보며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흐트해하던 치과대학생 S양은 잠시 생각에 잠겨본다. '60년대에는 여학생이 불과 두 세 명인데 98년에는 101명의 얼굴 중 30명이 여자구나. 이리다 여자가 더 많아지겠는걸...'

## 의료계 단체, 여성이 몰려온다

치과계에서 여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사진으로 확인했듯이 치과계에서 여성의 비율이 늘고 있음은 치과병원에서 스쳐지나는 여자수련의만을 감안하더라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비단 치과계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함께 모든 사회생활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치협 총무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1년까지 등록된 회원수는 3,637명이며 이중 남자가 3,414명, 여자가 223명으로 당시 남자가 치과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3.9%인 반면 여자가 치과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3%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82년부터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성별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82년에는 여성 회원의 비율이 9.97%인 것으로 나타났고 83, 84, 85년까지 10%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86년에 들어서야 여성 회원의 비율이 10%대를 넘어서 13.89%를 나타냈으며 그 후 89년에 이르면 여성의 비율이 30.53%를 차지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약 1대3이 된다. 90년부터 97년까지 여성의 비율은 평균 29.29%를 나타낸다<표 1>.

98년 6월 현재 치과의사의 성별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70세에서 74세 0.68%, 75세에서 79세 2.96%, 45세에서 49세 3.62%의 여성 비율을 각각 나타내지만 30세에서 34세의 여성 비율은 26.29%, 29세 이

<표1> 연도별 면허취득 치과의사의 성별 분포 <1998년 6월>

| 연도   | 인원  |     |       | 비율(%) |       |
|------|-----|-----|-------|-------|-------|
|      | 남   | 여   | 계     | 남     | 여     |
| 1982 | 289 | 32  | 321   | 90.03 | 9.97  |
| 1983 | 321 | 31  | 352   | 91.19 | 8.81  |
| 1984 | 347 | 24  | 371   | 93.53 | 6.47  |
| 1985 | 432 | 38  | 470   | 91.91 | 8.09  |
| 1986 | 502 | 81  | 583   | 86.11 | 13.89 |
| 1987 | 660 | 112 | 772   | 85.49 | 14.51 |
| 1988 | 775 | 140 | 915   | 84.70 | 15.30 |
| 1989 | 685 | 301 | 986   | 69.47 | 30.53 |
| 1990 | 707 | 285 | 992   | 71.27 | 28.73 |
| 1991 | 364 | 172 | 536   | 67.91 | 32.09 |
| 1992 | 836 | 313 | 1,149 | 72.76 | 27.24 |
| 1993 | 639 | 260 | 899   | 71.08 | 28.92 |
| 1994 | 533 | 228 | 761   | 70.04 | 29.96 |
| 1995 | 543 | 209 | 752   | 72.21 | 27.79 |
| 1996 | 458 | 228 | 686   | 66.76 | 33.24 |
| 1997 | 763 | 265 | 1,036 | 73.65 | 26.35 |

<표2> 연령별 성별 면허취득 치과의사 분포 <1998년 6월>

| 연령      | 성 별    |       |       |       |
|---------|--------|-------|-------|-------|
|         | 남(명)   | 비율(%) | 여(명)  | 비율(%) |
| - 29    | 2,243  | 65.76 | 1,168 | 34.24 |
| 30 - 34 | 3,347  | 73.71 | 1,194 | 26.29 |
| 35 - 39 | 2,499  | 89.47 | 294   | 10.53 |
| 40 - 44 | 1,525  | 90.83 | 154   | 9.17  |
| 45 - 49 | 719    | 96.38 | 27    | 3.62  |
| 50 - 54 | 465    | 96.07 | 19    | 3.93  |
| 55 - 59 | 419    | 95.44 | 20    | 4.56  |
| 60 - 64 | 428    | 92.04 | 37    | 7.96  |
| 65 - 69 | 204    | 94.01 | 13    | 5.99  |
| 70 - 74 | 146    | 99.32 | 1     | 0.68  |
| 75 - 79 | 131    | 97.04 | 4     | 2.96  |
| 80 -    | 150    | 93.17 | 11    | 6.83  |
| 합계      | 12,276 | 80.67 | 2,942 | 19.33 |

하의 여자치과의사는 34.24%로 나타났다<표 2>.

그렇다면 다른 의료계 단체의 여성분포 현황은 어떨까? 대한의사협회 기획연구실의 <97년 전국회원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5년 의사회원의 수는 18,095 명이며 이중 여자의사가 233명으로 1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8년에는 13.3%, 90년 14.0%, 92년 14.9%의 여자의사 비율을 각각 나타냈으며 97년에는 43,534명의 회원중 여자의사는 6,791명으로 15.6%의 비율을 보여 여자의사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연령에 따른 여자의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21%, 75세에서 79세, 70세에서 74세, 55세에서 59

세, 50세에서 54세가 10% 미만의 비율을 보이며 30세에서 34세와 29세이하의 여자의사의 비율이 각각 20.79%, 25.30%로 20%가 넘는 비율을 보였다<표 4>.

이상에서와 같이 여자치과의사와 여자의사 공히 29세 이하에 면허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타연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한약사회 “여자가 더 많아요”

대한약사회의 경우 여자 회원이 남자 회원보다 더 많아 97년 12월의 약사신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자가 14,070명, 남자가 12,4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여약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을까? 약사공론 기획국의 약사회원 실태에 따르면 약사면허 소지자의 남녀비율은 1979년까지 남성이 앞서 있다가 1980년 약사국시 이후 여성이 12,275명으로 12,091명의 남성을 앞질렀다. 한편 회원 신상신고 결과에 따르면 1990년까지 미세한 우열을 보였던 남녀 비율이 1991년부터 여성이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의료단체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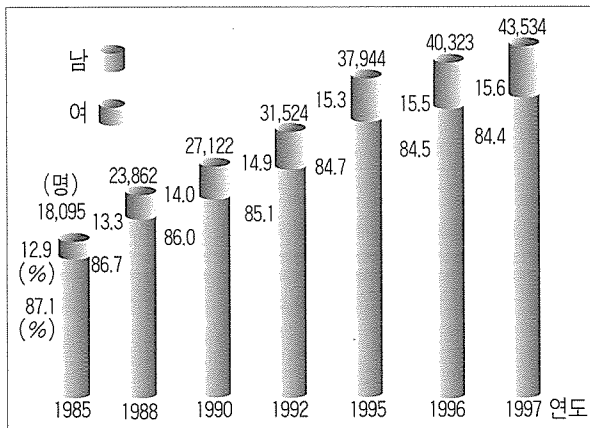
이처럼 치협과 타의료단체의 여자회원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지만 숫적 증가에 비해 여자의 운신의 폭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치협의 경우 현의장단과 감사단, 그리고 집행부 임원은 22명에 이르지만 여자 임원은 1명에 그치고 있고 대한약사회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숫적으로 우세하

지만 9명의 부회장단 중에서 단 1자리만을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치과의사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고 또한 여자의 사회진출을 반기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치과계도 남성 위주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표3> 연도별 성별 의사 분포 (1997년)



<표4> 연령별 성별 의사 분포 (1997년)

